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사실’과 ‘시간’ 연구

박한라*

|| 차례 ||

- I. 서론
- II. 비사실과 주관적 사실의 식별불가능성
- III. 시간을 통한 거짓의 역량과 구조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날이미지시의 사실을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나누어 성격을 살펴본 후 날이미지시의 사실과 시간과의 관련성을 통해 시의 구조를 고찰해보았다.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원본이 없는 ‘가상’과 ‘사실’ 사이,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 사이에서 식별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날이미지 성격은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가며 층위를 분별할 수 없는 직접적인 시간의 발현 지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날이미지시에서의 진리는 원본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변한다. 직접적인 시간의 출현을 통한 ‘살아있는 이미지’가 바로 날이미지시인 것이다.

주제어 : 오규원, 날이미지, 주관적 사실, 식별불가능성, 시간-이미지, 거짓의 역량

* 고려대학교 강사

I. 서론

본고는 날이미지시가 근간으로 하는 ‘사실’과 ‘시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오규원(1941~2007)은 1965년에 등단한 이후 40여 년에 걸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적 성과는 『현실과 극기』(1977), 『언어와 삶』(1983), 『날이미지와 시』(2005) 등의 시론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적 방법론을 모색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날이미지시는 시적 방법론의 변화 양상 중 후기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유를 통해 인간의 관념을 배제하여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시적 도전의 결과다. 즉 날이미지시는 인간의 개념을 벗어난 현상을 기록한 이미지로 “그 현상이 그 ‘존재의 언어’라고 할 때, 그 언어는 존재의 시간적 생성과 함께 일어난다.”¹⁾ 따라서 ‘사실’과 ‘시간’은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날이미지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그의 시론을 비판하거나 천착하여 의의를 살펴본 것으로서 요약할 수 있다.²⁾ 이러한 논의는 ‘환유 양상’, ‘날이

1)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p.123.

2) 이정은,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구조적 특성 연구 -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권혁웅, 「날이미지시는 날이미지로 쓴 시가 아니다 - 오규원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시와 반시』, 2007 가을.

김진수, 「‘날이미지시’의 의미론적 차원 - 오규원의 시집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와 시론집 『날이미지 시』, 『시와반시』, 2007 가을.

문혜원,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시와 반시』, 2007 가을.

함중호, 「김춘수 ‘무의미시’와 오규원 ‘날이미지시’ 비교 연구 - ‘발생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이해운, 『오규원의 날이미지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2009.

오연경, 「‘날(生)이미지’와 사건의 시학 - 오규원의 후기시에 대하여」, 『문학선』, 2009 봄.

미지의시의 구조', '사실과 존재의 관련성', '의미와 무의미' 등으로 주제를 대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날이미지란 의미나 관념으로 고착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다. 이는 인간 중심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대상을 객관적인 위치에 두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묘사한 결과다. 이를 오규원은 "'[날]생[이미지시]'는 개념 화되거나 사변화되기 이전의 의미인 '현상'을 이미지로 하고 있는 세계"³⁾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날이미지시는 인간의 관념이나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 현상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나 날이미지시를 구성하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과 구분되는 '사실'이며, 심지어 가상과 유사한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오규원은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구분하여 결국 날이미지가 사실에 근거함을 주장한다.⁴⁾ 또한 이찬은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고정된 사물의 정물적 재현이 아니라, '시간적 순차성'에 따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현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날이미지시'의 다른 '사실성'⁵⁾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날이미지시가 '사실'과 '시간'을 기반으로 한 현상에 입각해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날이미지시의 사실을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나누어 성격을 살펴본 후 날이미지시의 사실과 시간과의 관련성을 통해 시의 구조를 고찰해볼 것이다.

김혜원,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사진적 특성 -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8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 12.

박한라, 「현대시에 나타난 영상적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3) 오규원, 앞의 책, p.89.

4) 위의 책, pp.93-94.

5) 이찬,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0집, 한국시학회, 2011, p.245.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사실’은 원본이 없는 시물라크르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원본이 없는 사실성이 가지고 있는 시적 효과를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미지의 성질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시간’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고는 들뢰즈의 ‘시간-이미지’를 차용하고자 한다. 시간-이미지는 인과관계와 같이 인간의 이성으로 작동하는 운동-이미지를 전복시킨 흐름으로, 유기적 조직으로부터 벗어나 ‘시간 그 자체’를 드러내는 흐름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간-이미지를 통해 날이미지시에 나타나는 시간의 생성을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날이미지시에 해당하는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 『두두』로 정한다.⁶⁾

날이미지시의 ‘사실’과 ‘시간’은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시작법의 의의를 담당한다. 이에 본고의 시도를 통하여 날이미지시를 구성하는 ‘사실’적 성격과 ‘시간’의 구조가 객관적 시각에서 해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I. 비사실과 주관적 사실의 식별불가능성

날이미지시에 대한 시론집인 『날이미지와 시』에서는 환유를 축으로 하는 언어체계를 통해 날이미지시의 사실성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은유를 축으로 하는 언어체계가 관념적 의미를 적극 수용하는 의미론적 한 세계의

6) 『사랑의 감옥』은 날이미지시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으나 날이미지의 특성이 드러난 시는 소수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측면이라면 환유를 축으로 하는 언어체계는 표상적 의미를 적극 욕망하는 세계의 한 국면이기 때문이다.”⁷⁾ 이는 은유가 인간 중심적으로 대상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환유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서술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유에 의한 시작법은 시의 현상을 의미로 구속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현상 그 자체의 드러냄이라 볼 수 있다. 이때 ‘환유적 사실’이란 관념이나 의미로 대치되는 은유로부터 벗어나 감각적 표상의 연상 작용으로서의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사실성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 표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그림자 하나조차 일치하지 않는데도, 그 속에서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문제”⁹⁾인 것이다. 환유가 연상 작용에 의한 수사법이라는 점에서도 조직된 이미지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나타나는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무엇일까.

오규원 시인은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사실을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구분한다. 현상적 사실이란 보이는 대로의 사실을 서술한 것이며 환상적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착시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둘 다 보이는 대로의 사실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오규원은 날이미지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다음 시를 통해 우선 ‘현상적 사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7) 오규원, 앞의 책, p.18.

8) 오규원, 위의 책, p.19.

9) 오규원, 위의 책, 위의 쪽.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는 플라타너스가 선일곱 그루, 빌딩의 창문이 칠백열아홉, 여관이 넷, 여인숙이 둘, 햇빛에는 모두 반짝입니다.

대방동의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는 양념통닭집이 다섯, 호프집이 넷, 왕족발집이 셋, 개소주집이 둘, 레스토랑이 셋, 카페가 넷, 자동판매기가 넷, 복권 판매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마땅히 보신탕집이 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모두 비에 젖습니다. 산부인과가 둘, 치과가 셋, 이발소가 넷, 미장원이 여섯, 모두 선팅을 해 비가 와도 반짝입니다.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 부분¹⁰⁾

언덕 위에 미루나무 네 그루가 하늘을 지우고 서 있습니다
첫번째 미루나무는 두번째 미루나무보다 키가 작습니다
두번째 미루나무는 세번째 미루나무와 키가 같습니다
세번째 미루나무는 네번째 미루나무와 키가 같습니다
네번째 미루나무는 첫번째 미루나무보다 키가 큼니다
세 번째 미루나무는 까치가 앉아 있는 두 번째 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두 번째 미루나무는 까치가 없는 첫 번째 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해와 미루나무」 부분¹¹⁾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명과 위치가 등장한다.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그 두 건물의 사이에 있는 나무 그루 수까지 서술되어 있는 이 시는 보이는 대로的事实을 서술한 ‘현상적 사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해와 미루나무」에서도 “첫번째 미루나무”부터 “네번째 미루나무”까지 키에 대한 비교가

10) 오규원,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문학과지성사, 1995, p.14.

11) 오규원,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 문학과지성사, 2005, p.30.

상세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무의 기울기까지 묘사되어 적나라한 사실이 구현된다.

그러나 이 두 시는 현상적 사실로 조직된 시물라크르다. 오규원은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에 대해 “투명한 문맥 속에 내재하는 ‘사실들의 열거’가 환유적으로 말해주는 ‘사실들의 사실성과 사실들의 허위성’의 음영”¹²⁾이라고 언급한다. 「해와 미루나무」에 등장한 첫번째에서 네번째 미루나무도 환유적 묘사를 통해 조직된 ‘현상적 사실’인 것이다.

이처럼 날이미지시의 현상적 사실은 지명과 위치 등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가상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적 묘사는 사실과 과도하게 닮아서 오히려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사실이 된다. 즉 이는 시물라크르를 통해 리얼리티를 생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날이미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배열, 조화, 구성을 이루어 비사실적 사실을 완성한다. 날이미지에서 구현된 비사실은 사실보다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구현됨으로써 ‘원본 없는 사실’이 된다. 따라서 날이미지시의 ‘현상적 사실’은 이미지가 ‘사실’이 되는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현상적 사실’에서 사실과 비사실은 서로 교환하며 순환한다. 따라서 이는 사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처럼 정교하게 묘사된 ‘현상적 사실’은 지나치게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현상이므로 사실과 가상에 대한 판단 중지를 유발하는 동시에 정신분석학적인 ‘엔캐니’의 효과를 자아낸다. 엔캐니는 낯섦, 불편함 등의 뜻이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귀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 느끼는 섬뜩함은 엔캐니의 일환이다. 즉 엔캐니는 양가성을 전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엔캐니의 특징인 양가성은 탈경계

12)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p.25.

성, 애매모호성, 불확실성, 결정불가능성, 재현 불가능성과 중첩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¹³⁾ 다시 말해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닌 가상은 친숙함과 낯설음의 교란을 통해 마치 사실의 유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유발하는 것이다. 「대방동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사이」와 「해와 미루나무」의 풍경도 과도하게 사실적인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섬뜩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날이미지의 ‘현상적 사실’은 사실과 가상의 양가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사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에서 현상에 대한 존재성을 구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재현은 원본인 실재와 이원론적 관계를 맺지만 날이미지시의 사실적 현상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새로운 실재가 된다. 즉 날이미지시의 사실적 현상은 실재와 일원론적 관계를 맺는다.

이번에는 날이미지시의 ‘환상적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 여자가 길 밖에
머리를 두고
길 안으로 간다
여자의 치마 끝에서
길이 몇 번 펄럭거린다
작고 둥근 자갈과
작고 둥근 자갈 위의 길을 지나
은행나무에 걸린
허공 아래로 간다
길 밖에서

13) 조가영, 「발레작품에 나타난 자동인형 모티브 연구 -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4, p.49.

메꽃이 하나 이울고
 여자가 허공을 거기에 두고
 길에 파묻힌다
 허공에 기대고 있던 아이가
 여자의 치마를 길 밖으로
 잡아당긴다

「여자와 아이」 전문¹⁴⁾

위 시는 오규원이 『날이미지와 시』에서 환상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시다. 오규원은 “여자의 치마 끝에서/길이 몇 번 펠럭거린다”의 언술이 “치마 때문에 길이 펠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므로, 환상적 사실”¹⁵⁾이라고 언급한다. 즉 착시현상으로 인해 ‘보이는 대로’를 묘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날이미지시에서의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주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보이는 대로의 현상’의 환상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날이미지와 시』에서는 “한 여자가 길 밖에/머리를 두고/길 안으로 간다”의 언술이 “여자의 머리가 길(도로) 밖으로 보이고 몸통은 길(도로)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순간”¹⁶⁾을 포착한 것이므로 ‘현상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허공에 기대고 있던 아이”라는 언술도 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허공이므로 ‘현상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는 자’ 입장이 아닌 ‘언술’만 보았을 때 이러한 언술은 사실과 환상 간의 구분을 식별하기 어렵다. 즉 현상적 사실조차 환상적 사실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착시 현상으로 “아이”가 “허공”에 기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4) 오규원,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문학과지성사, 1999, p.39.

15) 오규원, 위의 책, p.93.

16) 오규원, 위의 책, 위의 쪽.

또 다른 나무 한 그루는
그 집에 사는 한 사내가 혼자
자주 가서 서 있는
서쪽으로 조금 치우친
이 집의 구석에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잎이 붉은
이 나무는 서쪽만 제외하고
위로 뻗는 가지와
다른 쪽의 가지가 모두 잘려
있다 거칠게 잘린
그 가지 끝으로 가끔 새가 와서
하늘을 보며
오오래 앉았다가 간다
사마귀는 그러나 밑에서 기고
서쪽에서는
그곳으로 자란 가지들이 모여
모든 잎을 들고 위에 덮인 하늘의
색깔을 바꾸고 있다

「조주의 집 2」 부분¹⁷⁾

위 시는 ‘현상적 사실’로 시작된다. “또 다른 나무 한 그루”의 “가지”와 “잎”, “그 가지 끝으로” 날아오는 “새”나 그 밑으로 기어가는 “사마귀”는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옮겨 적은 결과다. 그러나 “그곳으로 자란 가지들이 모여/모든 잎을 들고 위에 덮인 하늘의/색깔을 바꾸고 있다”라는 언술은 언술만 보았을 때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의 중간 위치에서 식별 불가능한 성질을 지닌다. “잎”이 “하늘의/색깔을 바꾸고 있”는 현상이 ‘현상

17) 오규원,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문학과지성사, 1995, p.39.

적 사실'이라면 “있”으로 가려진 “하늘”을 묘사한 것이고, ‘환상적 사실’이라면 “있”이 잔뜩 자라나 하늘의 색깔까지 착시 현상으로 물들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서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인간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관념이나 의미에 포섭되지 않은 현상을 일컫는다. 날이미지시의 ‘현상적 사실’은 원본이 없는 이미지로 그 자체가 ‘사실’이 된다. 따라서 원본 없는 사실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때 ‘현상적 사실’은 가상과 사실이 서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언캐니’의 감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환상적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서술된 이미지다.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은 모두 보는 자 입장에서 직접 본 그대로의 현상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 사실’이 착시 현상으로 인한 ‘환상적 사실’과 식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상적 사실’은 날이미지시만의 리얼리티로서의 사실과 환상의 중간 위치에서 또한 식별 불가능하다. 즉 날이미지시의 주관적 ‘사실’은 ‘원본이 없는 가상’과 ‘사실’ 사이, 그리고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날이미지시의 사실이 보이는 대로의 ‘주관적 사실’이라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시간을 통한 거짓의 역량과 구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이미지시의 근간이 되는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주관적 사실이 창조된 결과다. 이때 날이미지의 사실은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살아있는 이미지’로 구현되며 관념이나 의미로부터 벗어난다. 이에 대해 오규원은 “진리는 동사로 발견되고 서술되기

도 한다”¹⁸⁾라고 언급한다. 즉 날이미지의 사실이 살아있는 이미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전제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날이미지를 구성하는 ‘사실’과 ‘시간’과의 관련성을 통해 날이미지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길을 벗어난 곳에 사당이 있다
동서로 기울어져 있는 지붕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볕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뱀딸기들이 닳치는 대로 나무와
그늘에 붉은 몸을 내려놓고 있다
그래도 잎은 붉은 몸과 함께 파랗게
물결친다 사당에서도 개미들은
자기의 그림자에 발이 젖어 있다
사당을 세운 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처마 밑에 진을 친 거미는
속이 없는 진중을 오가며
아직 무겁게 몸을 다스린다 그러나
나팔꽃 줄기는 담장의
중간쯤에서 더 오르지 않고
흔히 본 그런 꽃을
서너 개 내려놓고 있다

「사당과 언덕」 전문¹⁹⁾

이 시는 ‘사당과 언덕’을 현상적 사실을 통해 구현한다. “길”, “사당”, “햇볕”, “뱀딸기”, “잎”, “사당”, “개미”, “거미”, “나팔꽃 줄기” 등은 서로 인접해있는 대상들끼리 관계를 맺으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때 형성

18) 오규원, 앞의 책, p.25.

19) 오규원,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문학과지성사, 1995, p.27.

되는 '살아 움직임'은 관념이나 서사를 위해 조직된 시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오규원은 사진은 시간을 표현할 수 없지만 시에서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현상으로 자신을 말한다고 할 때,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모든 존재의 그 현상이 그 '존재의 언어'라고 할 때, 그 언어는 존재의 시간적 생성과 함께 일어난다. 이 생성적-시간적 언어인 현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生] 언어'이며 동시에 굳어 있지 않은 의미로서의 이미지"²⁰⁾인 것이다. 즉 시간적 생성이야말로 날이미지시의 사실적 이미지를 이루는 근본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시간'을 중심으로 창조된다.

이러한 시간은 들뢰즈가 고찰한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로의 이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의 구분 원리는 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시간-이미지로의 이행 안에 존재한다."²¹⁾ 운동-이미지가 인간의 이성으로 편집하여 의미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시간-이미지는 "관계를 침윤하고 느슨하게 하거나 균형을 깨뜨리고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혼란들"²²⁾, 즉 운동-이미지의 위기를 통해서 발현된다. 인간의 관념이나 의미에 의해 이미지가 연결되는 운동-이미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시간'이 등장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인과관계와 같은 인간 중심의 이성적인 원리로부터 벗어난 순수 상태의 시간을 "순수 시청각적 상황"²³⁾이라 부른다. 이

20) 오규원, 앞의 책, p.123.

21) 쉬잔 엠 드 라코트, 이지영 옮김, 『들뢰즈 : 철학과 영화』, 열화당, 2004, p.25.

22) 질 들뢰즈, 이정하 옮김, 『시간-이미지』, 시각과언어, 2005, p.19.

23) 김호영, 「들뢰즈의 영화 미학 : 시간-이미지와 모데르니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6집, 2001, p.78.

러한 이미지는 시간 그 자체에 집중하므로 “사건을 서술하면서 종결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 몰두하도록 한다.”²⁴⁾

날이미지시는 인간의 관념이나 의미로부터 벗어난 현상이 흘러감으로써 인위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시간’ 그 자체를 구현해낸다. 즉 인간의 이성을 통해 조직되지 않는 서술법은 운동-이미지에서 조직된 인위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날이미지시의 이러한 시간 구조는 포괄적인 상황이 사라지고 대상들이 자유분방하게 어울렁거릴 뿐이므로 중심이 없으며 결말도 없다. 이처럼 날이미지시의 시간은 의미로부터 벗어난 ‘무한한 열림’의 구조로 ‘진행’할 뿐이다.

따라서 위 시에서도 “길을 벗어난 곳에” 있는 “사당”과 “햇볕” 아래의 “뱀딸기”, “개미”의 움직임, “거미”의 움직임, “나팔꽃 즐기” 등의 이미지가 인과관계나 필연성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흐름은 작위적인 시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시간’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날이미지시에서 분기되지 않은 시간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한다.

허공에 크고 붉은 해를 하나 그렸습니다
 해 바로 아래 작은 산 하나를 매달아 그렸습니다
 해와 산은 캔버스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산 귀퉁이에는 집을 하나 반쯤 숨겨 그렸습니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창을 드르륵 엽니다
 지나가던 새 한 마리가
 집에 눌러 손뚱만하게 된 나를

24) 피종호, 「들뢰즈의 시간-이미지 또는 이미지로서의 시간」, 『뷔히너와현대문학』 제35집, 한국뷔히너학회, 2010, p.376.

빤히 쳐다보다 갑니다

「그림과 나2」 전문²⁵⁾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1행부터 4행까지는 화자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적 사실이 드러나 있다. 캔버스에는 “붉은 해”, “작은 산”, “집”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5행부터는 사실과 환상이 식별 불가능한 현상이 등장한다. 화자는 “그 집에 들어가 창을 드르륵” 연다고 언술되지만, “그 집”이 화자가 캔버스에 그린 “그 집”인지, 현실 속의 “그 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행부터의 언술들은 전자로 해석한다면 모두 가상(그림)이 되며, 후자로 해석한다면 사실(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자)이 된다.

날이미지시의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직접 출현하는 시간-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적 시간과 잠재적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로 들뢰즈는 결정체 이미지(crystal-image)를 든다. 이는 ‘순수 시청각적 상황’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미지다. 결정체 이미지의 주요한 특징은 현실적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가 서로 식별할 수 없이 결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⁶⁾ 더 나아가 결정체 이미지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상상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²⁷⁾를 자유롭게 오고가며 분별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밀고나간다. 결정체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시간-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형태로, 인간중심의 관념이나 의미에서 벗어난 탈구적 흐름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시간 그 자체를 고찰한 결과로서 잠재적 층위와 현실 층위가 분할되기 직전의 공존 상태를 통해 시간 그

25) 오규원,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 문학과학지성사, 2005, p.20.

26) 김지영, 「이미지의 잠재성: 들뢰즈의 『시네마 2: 시간이미지』를 중심으로」, p.135.

27) 피종호, 「들뢰즈의 시간-이미지 또는 이미지로서의 시간」, pp.379-380.

자체의 성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 “그 집”은 화자가 과거에 본 것인지, 화자가 현재에 있는 곳인지, 화자가 미래에 있을 곳인지 알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 집”에 응축되어 ‘현실/잠재’, ‘실재/상상’ 층위가 공존하고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란 본래 매 순간 ‘지나가는 현재’와 자신 속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로 분열된다”²⁸⁾는 응축된 시간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한다. 날이 미지시는 이러한 직접적인 시간²⁹⁾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이때 직접적인 시간은 결국 앞 장에서 다룬 주관적 사실의 식별 불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날이미지시의 시간 생성을 통해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강이 허리가 꺾이는 곳에서는 산이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산의
 머리는 하늘과 닿고 산이
 물러선 자리는 텅 비고 절벽이 생겨
 곳곳의 물이 거기 모여
 반짝였다 산을 따라가지 못한
 절벽은 그러나 자주 몸을 헐며
 서서 물을 받는다 짝짝한 그 붉은 황토에
 동그랗게 숨구멍을 뚫고 물총새가
 절벽과 함께 몸을 두고
 새끼를 기른다 그래서 절벽에 붙어
 강을 굽어보는 물총새가

28) 김호영, 앞의 논문, p.78.

29) 간접적인 시간은 운동-이미지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나 이성적 조직을 통한 시간의 재현이다.

긴 부리로 가볍게 해를 들고
있을 때도 있다 절벽 끝에 사는
키 작은 망개나무와 싸리나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들어올릴 때도 있다

「물과 길4」 전문³⁰⁾

강의 물을 따라가며 안개가 일었다
안개를 따라가며 강이 사라졌다 강의
물 밖으로 오래전에 나온
돌들까지 안개를 따라 사라졌다
돌밭을 지나 초지를 지나 독에까지
올라온 안개가 망초를 지우더니
곧 나의 하체를 지웠다
하체 없는 나의 상체가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이미 지워진 두 손으로
지워진 하체를 툭 툭 쳤다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강변에서 툭 툭 소리를 냈다

「안개」 전문³¹⁾

「물과 길4」은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이 서로 소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강이 허리가 꺾이는 곳”은 현상적 사실이지만 “산이/뒤로 물러섰다”는 환상적 사실이다. 둘 다 날이미지가 일컫는 ‘보이는 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러한 날이미지의 사실은 사실과 환상이 서로 교통하는 결정체 이미

30) 오규원,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문학과지성사, 1995, p.31.

31) 오규원,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문학과지성사, 1999, p.15.

지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직접적인 시간이 출현하게 된다.

그런데 날이미지시는 사실과 환상이 반복적으로 소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증식한다. “절벽이 생겨/곳곳의 물이 거기 모여/반짝”이는 현상(사실), “산을 따라가지 못한/절벽”(환상), “절벽에 붙어/강을 굽어보는 물총새”(사실), “물총새가/긴 부리로 가볍게 해를 들고/있을 때도 있다”(환상)와 같이 사실과 환상의 반복 양상은 ‘보이는 대로’ 서술한 날이미지시의 사실을 통해 식별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반복 양상은 결정체 이미지의 증식과 유사하다. 결정체 이미지는 수많은 거울들의 반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 “함께 가능하지 않은 현재들의 동시성과, 반드시 참이지만은 않은 과거들의 공존은 참의 형식을 대체하고 거짓의 역량을 증명한다.”³²⁾ 결정체 이미지에서의 거짓은 진리와 반대 개념이 아니다. 실재와의 끈을 상실한 거짓은 창조를 통해 “잠재화 혹은 역량의 계열”³³⁾을 현현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리를 생성한다. 즉 “창조적 역량이 바로 ‘거짓의 역량’이며 그것이 미래로의 역능인 것이다.”³⁴⁾

이처럼 날이미지시의 시간은 전에서 후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가적인 층위가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생성한다. 이는 날이미지시의 시간이 생성해내는 이미지가 기존과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날이미지시의 “진리는 도달하거나 만들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³⁵⁾으로 변한다.

32) 김지영, 앞의 논문, p.143.

33) 이지영, 「들뢰즈의 <시네마2>의 구조에 대한 연구 -‘거짓의 역량’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51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4, p.271.

34) 이지영, 위의 논문, p.277.

35) 김지영, 「이미지의 잠재성: 들뢰즈의 『시네마 2: 시간-이미지』를 중심으로」, 『비평과이론』 제13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08, p.145.

거짓의 역량을 강화하는 날이미지의 서술은 '서사'를 만드는 대신 '차이화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강과 산', '산과 절벽', '물총새와 절벽', '망개 나무와 하늘' 등의 이미지는 '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이화의 방식'을 통해 나열될 뿐이다. "차이화의 방식이란 하나의 향이 있고 또 다른 향이 선택될 때, 두 향 사이에 차이가 생겨 그 차이가 제3의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식"³⁶⁾이다. "강"과 "산"이 만나 "절벽"이 생기고, "절벽"과 "물"이 만나 "붉은 황토"가 생기며, "붉은 황토"와 "물총새"가 만나 "가볍게 해를 들고/있"는 현상이 생성된다. 이처럼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그리고"로 연결되면서 '둘 사이'에서 폭발적인 생성의 역량을 실현³⁷⁾하는 시간-이미지를 구현하는 작업이며, 결국 직접적인 시간의 출현을 통한 '살아있는 이미지'다.

「안개」에서도 날이미지의 사실은 사실과 환상이 서로 교통하며 식별 불가능한 지점을 형성한다. 이 시에서 강-안개, 안개-화자, 화자-소리 등의 계열은 서로 이접적인 연합을 이룬다. 이때 사실과 환상의 교통에 대한 계열이 증식함으로써 거짓의 역량이 강화된다. '강-안개'의 관계에 해당하는 "강의 물을 따라가며 안개가 일"어난 현상은 사실 층위에 속하지만 '안개-화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하체 없는 나의 상체가/허공에 떠 있"는 현상이나 '화자-소리'의 관계에 해당하는 "지워진 하체를 툭툭 치는 현상은 사실과 환상의 식별 불가능한 지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사실과 환상이 서로 교통하는 차이의 구조를 통해 날이미지의 사실은 '직접적인 시간'을 생성하며 이러한 진행을 통해 거짓의 역량이 증대된다. 거짓의 역량은 날이미지시의 진리를 창조하는 방법인 것이다.

36) 김지영, 위의 논문, p.148.

37) 김지영, 위의 논문, 같은 쪽.

IV. 결론

본고는 날이미지시가 근간으로 하는 ‘사실’과 ‘시간’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오규원의 후기시에 해당하는 날이미지시는 ‘사실’과 ‘시간’을 기반으로 한 현상에 입각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날이미지시의 사실을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나누어 성격을 살펴본 후 날이미지시의 사실과 시간과의 관련성을 통해 그 구조를 고찰해보았다.

‘주관적 사실과 식별불가능성’에서는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 간의 식별 불가능한 지점을 살펴보았다. 오규원 시인은 날이미지시를 이루는 사실을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로 구분한다. 현상적 사실이란 보이는 대로의 사실을 서술한 것이며 환상적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착시 현상을 서술한 것이다. 우선 ‘현상적 사실’은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것’이다. 즉 사실처럼 조직된 이미지인 것이다. 이때 ‘현상적 사실’은 대상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배열, 조화, 구성을 배치하여 비사실적 사실을 완성한다. 날이미지에서 구현된 비사실은 사실보다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구현됨으로써 ‘원본 없는 사실’이 창조된다. 즉 사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때 ‘현상적 사실’의 과도하게 사실적인 현상은 언캐니를 유발한다.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닌 가상에서 친숙함과 낯섬의 교란으로 인해 마치 사실의 유령을 보는 듯한 느낌이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환상적 사실’은 보이는 대로의 ‘착시현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이미지인데, ‘현상적 사실’ 또한 언술만 보았을 때 환상적 사실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날이미지시의 사실은 ‘원본이 없는 가상’과 ‘사실’ 사이, ‘현상적 사실’과 ‘환상적 사실’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시간의 드러냄과 거짓의 역량’에서는 날이미지시의 사실과 시간-이미지의 유사성을 발견한 후 날이미지시의 구조를 고찰해보았다. 날이미지시는 관념이나 의미로부터 벗어난 현상이 흘러감으로써 인위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시간’ 그 자체를 구현해낸다. 즉 인간의 이성을 통해 조직되지 않는 서술법은 운동-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날이미지시의 이러한 시간 구조는 포괄적인 상황이 사라지고 대상들이 자유분방하게 어슬렁거릴 뿐이므로 중심이 없으며 결말도 없다. 이처럼 날이미지시의 시간은 의미로부터 벗어난 ‘무한한 열림’의 구조로 ‘진행’할 뿐이다. 이러한 시간에서 더욱 나아간 직접적인 시간의 현시는 ‘현실적 시간과 잠재적 시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가며 분별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밀고나갈 때 발생한다. 이는 결정체 이미지와 유사하며 시간이 분할되기 직전의 공존 상태를 통해 시간 그 자체의 성질을 구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때 시간은 연합을 통한 서사가 아닌 차이의 구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구조는 시간이 전과 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거짓의 역량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행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진리는 도달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창조되는 것으로 변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시간의 출현을 통해 ‘살아있는 이미지’가 바로 날이미지시인 것이다.

한국 문학사적으로 볼 때 날이미지시는 ‘사실과 가상’ 간의 관계를 첨예하게 사유한 ‘주관적 사실’의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리얼리티의 양상이라 볼 수 있다. 날이미지시의 주관적 사실은 사실과 가상의 식별불가능성을 통해 잠재적 ‘시간’을 새롭게 생성한다. 이는 리얼리즘을 통해 인간의 개념이나 관념과 같은 의미를 지향하지 않는 오규원만의 시적 도전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오규원, 『길, 골목, 호텔, 그리고 강물소리』, 문학과지성사, 1995.
——,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문학과지성사, 1999.
——,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 문학과지성사, 2005.
——, 『두두』, 문학과지성사, 2008.

단행본

- 쉬잔 엠 드 라코트, 이지영 옮김, 『들뢰즈 : 철학과 영화』, 열화당, 2004.
오규원, 『날이미지와 시』, 문학과지성사, 2005.
질 들뢰즈, 이정하 옮김, 『시간-이미지』, 시각과언어, 2005.

논문

- 권혁웅, 「날이미지시는 날이미지로 쓴 시가 아니다 - 오규원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시와 반시』, 2007 가을.
- 김지영, 「이미지의 잠재성: 들뢰즈의 『시네마 2: 시간이미지』를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3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08, pp.129-157.
- 김진수, 「『날이미지시』의 의미론적 차원 - 오규원의 시집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와 시론집 『날이미지 시』, 『시와반시』, 2007 가을.
- 김혜원,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에 나타난 사진적 특성 -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8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12, pp.305-330.
- 김호영, 「들뢰즈의 영화 미학 : 시간-이미지와 모데르니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6집, 2001, pp.177-194.
- 문혜원,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시와 반시』, 2007 가을.
- 오연경, 「날(生)이미지와 사건의 시학 - 오규원의 후기시에 대하여」, 『문학선』, 2009 봄.
- 박한라, 「현대시에 나타난 영상적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정은, 「오규원의 ‘날이미지시’의 구조적 특성 연구 - 시집 『토마토는 붉다 아니

- 달콤하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 찬, 「오규원의 '날이미지'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0집, 한국시학회, 2011, pp.229-256.
- 이혜운, 『오규원의 날이미지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가영, 「발레작품에 나타난 자동인형 모티브 연구 -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피종호, 「들뢰즈의 시간-이미지 또는 이미지로서의 시간」, 『뫼히너와현대문학』 제35집, 한국뫼히너학회, 2010, pp.369-388.
- 함중호, 「김춘수 '무의미시'와 오규원 '날이미지시' 비교 연구 - '발생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Study of 'fact' and 'time' in poetry of nal-image

Park, Han-ra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nature of nal-image by dividing it into phenomenal facts and fantasy facts, and then examined the structure of the nal-image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s and the time of the images. The fact of nal-image is that it can not be distinguished between 'virtual' and 'fact' without the original, between 'phenomenal reality' and 'fantastic reality'. This nal-image personality can not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potential", "subjective and objective", "imaginary and real", "mental and physical". This is related to time-image. The truth in this nal-image turns into a new creation rather than reaching the original or reproducing it. The 'living image' through direct emergence of time is nal-image.

Key word: Oh Gyu-won, nal-image, subjective fact, indivisibility, time-image, ability of deceit

박한라

소속 : 고려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hanra0912@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